

<2015년 11월 15일 주일말씀>

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깨닫고, 영적으로 쉼

본 문 에베소서 5장 16절

『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1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.

이제 2주만 더 가면, 201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게 됩니다.

10월과 11월은 ‘한 해의 운명을 좌우하는 때’ 라고 했지요?

그래서 10월부터 11월은 <때에 합당한 말씀>을 받아서
즉시 보내 주고 있습니다.

음식도 만들었을 때 즉시 먹어야 ‘제맛’ 이 나듯이,
말씀도 받았을 때 즉시 전해 줘야 ‘제맛’ 이 나서 행합니다.

◎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움직이게 되고,
바로 행하니 문제가 해결되고,
얻을 것을 얻고, 차원을 높이게 됩니다.

- ◎ 오늘은 <시간>에 대해 깨우쳐 주면서,
시간을 어떻게 써야 최첨단으로 쓰는지,
시간을 어떻게 써야 같은 시간을 5배, 10배 더 쓸 수 있는지
말씀해 주겠습니다.
- ◎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분야별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.
- ◎ 말씀의 주제는
‘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깨닫고, 영적으로 써라.’입니다.
- 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시계를 봤습니다.

그때!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,
5분이 어느 정도나 빨리 가는지 시계를 쳐다보며 숫자를 셧습니다.

<5분>은 ‘360을 셀 수 있는 정도의 시간’이었습니다.

- ◆ <사람의 말>이 얼마나 빠르지 그 속도를 보면,
1초에 몇 마디씩 합니다.

이같이 빨리 말해도 <5분>에 ‘360’ 밖에 못 세니,
5분이 일순간에 지나갑니다.

◆ 한 시간은 60분이지만,
어떤 일을 하든지 ‘한 시간’ 동안 해 놓고 보면 얼마 안 됩니다.

◆ 하루는 24시간이지만,
실상 어떤 목적을 놓고 쓰다 보면
그 목적을 향해 일을 하는 데는 10시간 정도밖에 못 씁니다.

24시간 안에 잠도 자야 되고, 식사도 해야 되고,
어떤 목적을 두고 행하는 데 준비도 해야 하는 등
과정의 시간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
◆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얼마 못 하고,
그 일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 시간이 부족하고,
시간을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빨리 지나갑니다.

◆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기를
“일을 하나, 안 하나 별로 한 것도 없이
〈하루 24시간〉이 이렇게도 빨리 갑니까?” 했습니다.

◆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너희는 〈육〉을 가지고 행하니,
쓰다 보면 별로 한 것도 없이 시간이 빨리 간다.

〈육신〉은 느려서 조금 움직이다 보면, 금방 한 시간이 간다.

말이 24시간이고 숫자만 많지,
실상 하루의 시간은 얼마 안 된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〈육신〉이라 느려서 그러하다.

-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.

하루에 ‘어떤 목적인 일’ 을 놓고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면
시간이 빨리 가고,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,
하루해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.

서두르고 급하게 빨리하면
시간이 충분하고, 하루해도 길고, 할 일도 하고 끝냅니다.

◆ 그러나 매일 서두르면서 빨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

생각보다 그렇게 <생각>이 빨리 돌아가지도 않고,
<몸>이 빨리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.

◆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<영>이 <육>을 끌고 하면, 빨리한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<영>이 <육>을 끌고 하면, ‘생각의 차원’ 이 높아져서
계속 ‘지름길’ 로 가게 됩니다.

고로 3배, 5배 빠르게 합니다.

그러면 하루해가 그만큼 갑니다.

같은 24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많은 일을 합니다.

고로 <영>이 <육>을 끌고서

<영>이 <육>을 쓰고서 ‘영적’ 으로 하라는 것입니다.

◆ <영>이 <육>을 쓰고 ‘영적’ 으로 하려면,
늘 기도하고 신령해야 됩니다.

- ◆ <시간>은 쉬지 않고 꾸준히 갑니다.

그런데 <육>은 느려서 <꾸준히 가는 시간>을 잘 못 따라잡니다.

순간! 5분이 지나가고,

잠깐! 뭘 하면 1시간이 지나가고,

조금 느슨하게 하다 보면 몇 시간이 후딱! 지나갑니다.

잠을 자고 나면 3~4시간이 가 버리고,

많이 자는 사람은 5~8시간이 순간! 지나가 버립니다.

- ◆ 한 시간을 주면서 “저 산을 넘어갔다 와라.” 하면

<육>은 ‘갈 때’ 1시간을 다 써 버리고,

‘올 때’ 는 또 1시간이 더 필요합니다.

그런데 <빠른 영>은 산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도

1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

- ◆ <영의 빠르기>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,

‘눈 깜빡할 사이’ 같이 빠릅니다.

여러분 모두 눈을 깜빡해 보세요. 정말 빠르지요?

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려면, <빛>으로도 ‘약 8분’ 이 걸립니다.

그런데 <눈빛>으로 태양을 보면, ‘순간 1초’ 도 안 걸리고 봅니다.

이렇게 ‘눈빛’ , 곧 ‘눈 깜빡할 사이’ 가 그리도 빠릅니다.

<영>이 이와 같이 빠릅니다.

- ◆ 또 <영의 빠르기>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,

‘마음과 생각’ 같이 빠릅니다.

지구에서 천국까지 가려면, <빛>으로 가도 ‘150억 년 이상’ 이 걸립니다.

그 먼 곳을 <생각>으로 가면, ‘눈 깜빡할 사이’ 에 갑니다.

<생각>이 천국에 갔으면,

<영>도 <혼>도 천국까지 간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.

또한 <영>이나 <혼>이 천국에 가면,

<생각>도 ‘자기 혼과 영’ 을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.

<생각>은 ‘자기 육’ 도 따라다니지만,

‘자기 혼과 영’ 도 따라다닙니다.

- ◆ 고로 <육>만 가지고 ‘육적’ 으로만 행하지 말고,
<영>을 가지고 <영>이 <육>을 쓰면서 ‘영적’ 으로 행하면
그만큼 <생각>도 빨리 돌아가고 <행실>도 빨리하게 되어
시간도 세월도 빨리 가지 않습니다.

- ◆ <몸>만 빨리 움직이려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.
<생각>이 빨라야 됩니다.
<생각>이 날렵하고 <생각>이 날아다녀야 됩니다.
그래야 <몸>도 날렵하고 날아다니면서 행하게 됩니다.

그러려면 꼭 기도하여

<영>이 <자기 육>을 쓰고 ‘영적’ 으로 행하게 해야 됩니다.

- ◆ <시간>은 ‘지구의 자전과 공전’ 입니다.

지구 세상 73억 명이 힘을 모아서 잡아도

<시간>은 못 잡습니다.

<시간을 잡을 수 있는 방법>은 ‘오직 하나’ 뿐입니다.
곧 ‘<생각>을 빨리하여 <육>을 빠르게 움직이기.’ 입니다.
그러려면 ‘<영>이 <육>을 끌고서 영적으로 하기.’ 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천국>은 ‘영으로 다니며 사는 곳’ 입니다.
고로 <천국의 시간>은 ‘이 세상의 시간 개념’ 과는 다릅니다.

<세상의 1000년>은 ‘천국의 하루’ 입니다.

<육의 인생 100년>을 ‘천국의 시간’ 으로 계산하면,
약 2시간밖에 안 됩니다.
- ◆ <육신>은 ‘천국의 시간으로 약 2시간’ 을 살고 죽는 것입니다.

그 짧은 시간에 ‘하나님이 보낸 구원자’ 를 만나,
그를 통해 ‘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’ 을 듣고,
하나님의 목적 중에서 최고의 목적인 ‘창조 목적’ 을 깨닫고,
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
<영>을 휴거시켜 ‘황금성 천국’ 에서 영원히 살게 해야 됩니다.
- ◆ 인생을 살아 본 사람들은
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것입니다.

80~90년 살았어도
‘세월이 금방 지나갔네. 언제 80년이 지났지?’ 합니다.

중고등부와 대학부 때 섭리사에 와서 큰 사람들은
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희끗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며

‘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?’ 할 것입니다.

- ◆ 고로 ‘해 놓은 것’ 이 없으면, 인생 허무합니다.

<육신>도 해 놓고,

<영>은 100% 완벽하게 구원해 놓고 휴거시켜 봐야 됩니다.

<육신 성공>은 못 하고 겨우 먹고 사는 정도여도

<영>이 완벽하게 휴거됐으면 ‘최고’ 입니다.

왜요? 휴거되면 ‘영원한 지옥의 고통’ 을 벗어나고,

영원히 ‘천국 황금성’ 에서 누리며 사니,

<육신>이 죽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.

<휴거의 영광, 휴거의 보람>은 영원합니다.

- ◆ <영>은 <빛>보다 ‘수백조 배’ 빨리 활동합니다.

고로 <영>이 ‘천국’ 에서 ‘하루’ 만 살아도

실상은 <육>이 ‘세상’ 에서 ‘수백조 배’ 더 산 격이 됩니다.

<육>이 인생 100년을 살면서

<자기 영>을 100% 완벽하게 구원하고 휴거시켜 봤다면,

실상 <육>이 ‘세상’ 에서 100년의 수백조 배를 더 산 것이 되니

세상에서 ‘육의 성공’ 은 못 했어도 ‘최고의 성공’ 을 한 것입니다.

이해했습니까?

알고 이해를 해야 <은혜>를 받고, 깨달아야 <감동>을 받습니다.

- ◆ <월명동 지역의 형상>도 ‘아는 자’ 만
“신비하다.” 하고 은혜를 받고 감탄하며,

하나님과 통하여 더욱 감사, 감격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.

◆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,
<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>을 배우고 써라.
그러면 인간으로서 최고 가치 있게 시간을 쓰게 된다.”

◆ 성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. 잘 들으세요.

“<시간>을 ‘음식’에 비유하여 말할 테니, 잘 들어 보라.

불고기가 막 구워졌을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?
그때 먹으면, 제맛이 나지 않느냐.
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고기는 식어서 제맛이 가 버린다.

과일도 싱싱할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.
그때 먹으면, 제맛이 난다.
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맛이 변해 버린다.

<음식의 제맛>이 변하면,
뇌에서 ‘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여겼던 마음’이
사라져서 먹고 싶지 않고,
먹어도 깨작거리며 먹게 된다.

시간도 그러하다.

<행할 시간, 쓸 시간>이 지나면 ‘제맛’ 이 변한다.

<시간의 제맛>이 변하면,

뇌에서 ‘하고 싶은 마음’ 도 사라져서 하고 싶지 않고,

하더라도 깨작거리며 행하게 된다.

고로 불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졌을 때

뜨거울 때 맛있게 씹어 먹듯이,

<일>도 나 성령이 감동을 줄 때,

뇌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흥분되어

그 일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일 때, 제때, 제시간에 해라!”

(하셨습니다.)

◆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.

“만일 <시간>이 지나서 ‘제맛’ 이 변했다면,

처음보다 못하지만 ‘맛’ 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.

고기가 식으면 ‘제맛’ 이 변하지만,

다시 데워서 뜨겁게 하면 어느 정도 ‘맛’ 이 돌아온다.

이와 같이 <할 시간>이 지나서 ‘제맛’ 이 변했더라도

일하기 전에 다시 ‘마음과 생각’ 을 뜨겁게 하고 열을 내어

흥분되게 만든 후에 행해라!

<마음과 생각>을 뜨겁게 데우지 않은 상태에서

설교를 하든지, 강의를 하든지, 전초를 하든지,

말씀을 전하든지, 관리를 하든지,
공부를 하든지, 어떤 일을 하면,
마치 ‘식은 음식을 먹는 것’ 과 같아서
그것은 ‘맛없는 예배, 맛없는 모임, 맛없는 행실’ 이 된다.

고로 어떤 일을 하든지
제때, 제시간에, 감동했을 때, 마음이 흥분했을 때 하고,
제시간을 놓쳐서 맛이 변했다면
다시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고 열을 낸 후에 해라.”

(하셨습니다.)

- ◆ 손님에게도 ‘식은 음식, 찬 음식’ 은 대접하지 않습니다.
하물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?
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우리 신부들을 대하실 때는
〈시간이 지나서 제맛이 변한 말씀〉을 주지 않으십니다.

하늘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면서 ‘가장 따끈따끈한 말씀’ 을 주시며,
우리를 〈생명 길, 휴거 길, 천국 길〉로 인도하십니다.

〈사랑〉도 그러합니다.

어제 사랑을 주었으면,
오늘은 오늘의 따끈한 사랑을 또 주십니다.

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.

- ◆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대할 때,
〈식은 음식〉을 주듯 〈식은 시간〉을 드리면 되겠습니까?

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,
성령님이 하자고 할 때 안 하는 것은
음식이 뜨끈뜨끈할 때 “같이 먹어요.” 하지 않고,
음식이 다 식어서 맛이 변한 후에 “같이 먹어요.” 하는 격입니다.

그러니까 성령님도 “판이 식고 할 맘이 없어진다.” 하셨습니다.

그러니까 “우리 같이 하자!” 하지 않으시고,
“너나 해라!” 하십니다.

◆ 실제로 성령님은 그리하십니다.

실제로 성령님이 새벽에 깨워 주실 때 안 일어나고
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“성령님, 저와 같이 해요!” 하니,
성령님은 “**식은 음식** 너나 먹어. **식은 시간** 너나 써.
너는 내게 **찬밥**과 **찬 시간**을 대접하느냐.
나 바빠.” 하고 떠나셨습니다.

그리고 “네가 시간을 지키면 다시 올 거야. 명심해.” 하셨습니다.

◆ 성령님은 제맛이 변하면, 떠나십니다.

제맛이 변했는데 다시 뜨겁게 하지 않으면, 떠나십니다.

시간도 그러하고, 약속도 그러합니다.

또한 죄를 지어서 제맛이 변해도 떠나십니다.

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야 다시 오십니다.

◆ 모두 성령님에 대해 알고서, 성령님을 모시고 대해야 됩니다.

- ◆ 저마다 ‘새벽 정한 시간’에 꼭 기도하고,
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시간’에 기도하면,
소고기 안심을 구워서 뜨끈뜨끈할 때, 제때 먹는 것과 같아서
잘 깨닫고, 삼위와 주와 대화도 잘되고,
기도도 잘되고, 계시도 받고, 응답도 잘 받고,
새벽의 제맛, 하루의 제맛이 나게 해 주십니다.

그러나 제시간이 지난 후에 하면 ‘혼자’ 해야 되니 힘들고,
하더라도 ‘맛 변한 음식’을 먹듯이 맛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.

- ◆ 기도도, 할 일도, 하늘과의 약속도
제때 제맛이 날 때 하기입니다.

제시간이 지나서 맛이 변했다면
마음과 생각을 다시 뜨겁게 해서 맛을 찾고 하기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성령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.

“하나님도, 성자도, 나 성령도, 구원자도
너와 통하려고 그렇게도 기다린다.

하루 24시간은 1440분인데
그중에서 ‘1분’ 만이라도 시간을 내어
삼위와 구원자와 통하려고 하면,
짧은 시간이라도 연결하여 그때 급한 것을 말해 주며 돕는다.

그런데 1440분을 몽땅 다른 데 쓰고,

단 1분도 삼위와 구원자를 찾지 않고 하루를 마친다.

그래 놓고 어떻게 나 성령을 부르며
천모요, 영혼의 어머니라 말하느냐.

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
하나님이, 성자가, 나 성령이 ‘너의 왕’ 이 될 수 있겠느냐.”

(하셨습니다.)

◆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.

“자기를 기쁘고 희망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고,
자기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
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찾아 골라서 수시로 보고,
인터넷 화면과 TV 채널을 바꿔 가며 다 보면서 살고 있구나.

그러다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영화를 보면서 즐기고,
하루 종일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, 쓰고, 입고, 먹고,
할 일을 다 하며 사는구나.

그러면서도 하루 1440분의 시간 중에서
단 ‘1분’ 도 삼위와 대화하지 않고,
삼위를 기쁘게 하지도 않고,
어떻게 하면 삼위가 좋아하실까 연구하지도 않느냐.

너는 삼위와 주를 ‘산 너머’ 에 놓고 멀리 떨어져 사는구나.

삼위와 주가 찾으면 오히려 바쁘다 하고,
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피하는구나.

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<영원한 지옥>에 안 간다 장담하고,
휴거되어 <천국 황금성>에 간다 장담하고,
<휴거 700선>까지 간다 장담하겠느냐.

그리고는 힘들 때, 문제가 생겼을 때, 일을 당했을 때
그제야 하나님과 나 성령과 성자와 구원자를 찾는구나.

삼위일체와 구원자를 ‘힘들 때 쓰는 지팡이’로 생각하고,
‘어려움을 돕는 심부름꾼’으로 생각하며,
네 마음대로 부리며 살고 있구나.

이런 자들이 많으니,
설교를 내보내서 ‘신앙의 경고’를 주어
각자 ‘자기 양심’으로 깨닫게 해 주어라.” 하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시간은 빨리 갑니다. 세월은 빨리 갑니다.

어린아이나 청소년은 자기에게 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,
‘해 놓은 것’ 없이 시간을 그냥 보내 버리면 ‘허무’만 남습니다.

어린아이에게도, 청년에게도, 중년에게도, 노인에게도
<시간과 세월>은 봐주지 않고
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.

- ◆ 지구 세상 73억 명이 힘을 합쳐서 잡아도
<시간>은 못 잡습니다.

<시간>은 ‘지구의 공전과 자전’이기 때문입니다.

<지구의 공전과 자전>을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?

인생아~ 늙지 마라. - 하며 잡아도 인생은 늙어 가고,
시간아~ 가지 마라. - 하며 잡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.

고로 보다 빨리 생각하고, 빨리 뛰면서 살아야

<시간을 잡은 자>가 되어

자기 육에게도 ‘많은 것’을 남기고,

자기 영에게는 ‘영원한 것’을 남겨 성공한 자가 됩니다.

◆ <생각>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.

<생각>이 날렵해야 됩니다.

그래야 <몸>도 날렵해져서 <실천>도 빨라집니다.

그러려면, <육>만 가지고 행하면 안 됩니다.

<육>은 느려서 <빠른 시간>을 못 따라잡니다.

꼭꼭 기도하면서 ‘영적’으로 행해야 됩니다.

◆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란, 이것입니다.

어떤 일을 하든지 꼭 <성령>을 부르고 <주>를 부르면서,
성령과 함께,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.

그러면 ‘2시간’에 할 일을 ‘1시간’만에 하여
<1시간을 잡은 격>이 됩니다.

◆ <시간을 잡는 방법>은 ‘빨리하는 것’이며,

<빨리하는 방법>은 ‘영적·신적으로 하는 것’입니다.

<육>으로 뛰어서는 시간을 ‘두 배’도 잡기 힘듭니다.

<육>으로 뛰면,
뛰어도 남보다 **조금 더, 한 뼘 더, 한 발자국 더** 앞서갈 뿐입니다.

<영적>으로 해야 됩니다. <신적>으로 해야 됩니다.
그래야 ‘10~20배의 시간’ 을 잡고서 쓰게 됩니다.

- ◆ <신적으로 하는 것>이란, 신의 머리를 사용하기입니다.
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대로 행하기입니다.

그리고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
‘돌아갈 길’ 을 질러가고
‘하지 말아야 할 일’ 을 안 하기입니다.

- ◆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
시키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행할 때,
그것이 ‘신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’ 이 되고
자기 생각이 ‘하늘같이 높은 생각’ 이 되어
10배, 100배 시간을 잡고 쓰는 자가 되어 행하게 됩니다.

- ◆ <신의 머리>를 써서 시간을 10배, 100배 잡아서 쓰고,
그리함으로 육에게도 많은 것을 남기고
영에게는 영원한 것을 남겨 최고의 성공을 하라고,
성삼위는 구원자를 통해 항상 ‘따끈한 말씀’ 을 주시는 것입니다.

- ◆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함으로 <신의 머리를 써서 한 자>가
<시간을 멈추게 한 자>가 되어
여호수아같이 ‘표적의 승리’ 를 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>을 ‘일찍 안 자’는 50년 전에 이미 알고, 30여 년 전부터 그 뜻을 세상에 전하면서 그로 인해 ‘하나님이 주시는 혜택’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.

곧 <재림과 휴거의 뜻>입니다.

- ◆ 그러나 30~50년을 먼저 태어나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이미 30~50년 전부터 <재림과 휴거>를 준비한 자들인데, <새 시대 하나님의 뜻, 신의 생각>을 몰라서 <생각>도 느끼고 <행실>도 느린 자들이 있습니다.

고로 그들은 <새 시대>에 대해서 꿈도 못 꾸고, 40~50년 이상 뒤쳐져 갑갑하게 살고 있습니다.

이런 자들을 보고 “인생 헛살았다.” 합니다.

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도 몰라서 못 하니, 준비하면서 시간만 보내다가 인생 황혼을 맞았고 더러는 죽기도 했습니다.

그 영이 영계에 가서 알고, 한탄할 것입니다.

- ◆ 그러나 그들보다 50년 늦게 태어났어도 <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, 신의 생각>을 알고 즉시 행하니, 그들보다 ‘40~50년의 시간’을 앞질러 가게 되었고 인생 100년을 앞질러 가게 되었습니다.

지혜자, 아는 자는 ‘지름길’로 갑니다.

고로 ‘시간을 잡은 자’가 되어, 늦게 출발했어도 빨리 갑니다.

- ◆ 선생은 <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>을 가르쳐 줍니다.
오직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>만을 가르쳐 줍니다.
이것이 <시대 말씀>입니다.

섭리사에 와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,

제대로 알고, 믿고 행하며 사는 자들은

50~70년 먼저 태어나서 먼저 믿은 자들보다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.

또한 100년, 200년, 300년, 500년, 700년 있다가 할 일을
지금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.

어떤 것은 700년, 800년, 900년이 가도 못 할 일인데
현재! 행하고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.

그것이 무엇입니까? <휴거>입니다.

- ◆ <휴거>로 ‘하나님의 창조 목적’을 이루고,
<휴거>로 ‘하나님의 뜻’을 완성하고,
<휴거>로 ‘성경의 예언’을 이루고,
<휴거>로 ‘천국 황금성의 문’이 열리고,
<휴거>로 ‘하나님의 한’이 풀립니다.
- ◆ 이 귀한 <휴거>는 ‘구원자가 살아 있는 당세’에만 하고 끝납니다.
구원자가 죽은 후에 새 역사로 오는 자들은
<휴거>가 아닌, <성약 신부급 구원>을 이룹니다.
- ◆ <구원자가 살아 있는 당세>에 새 역사로 와서
<휴거>를 이룬 자들은

마치 나이가 어려도 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격입니다.

<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>는

그 후 50년, 70년이 흘러가도 다시는 못 봅니다.

‘당세에 딱 한 번뿐’ 이기 때문입니다.

◆ <휴거>도 이와 같습니다.

‘구원자가 살아 있는 당세’ 만 <휴거 역사>를 봅니다.

후대에는 500년, 700년이 흘러가도 <휴거>는 못 봅니다.

고로 **지금 섭리사에 와서 <시대 말씀>을 제대로 배우고,**

제대로 알고, 믿고 행하며 사는 자들은

50~70년 먼저 태어나서 먼저 믿은 자들보다

앞질러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,

700년, 800년, 900년이 가도 못 할 일을

현재! 행하고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지금 이 귀한 때,

인류 역사상 한 번도 맞지 못했던 이때,

구원역사 6000년 동안 한 번도 맞지 못했던 이때,

성약 1000년 역사 기간 중에서 단 한 번뿐인 이때,

<하나님의 새 역사, 마지막 역사>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

하루 24시간, 곧 1440분의 시간 중에서

1분도, 10분도, 1시간도 삼위와 대화하는 데 쓰지 않으렵니까?

◆ 저마다 자기를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

하루 24시간을 다 써 버립니다.

잠자고, 먹고, 입고, 씻고, 운동하고, 놀고,
돈을 벌고, TV를 보고, 영화를 보고, 만화를 보고,
소설을 보고, 인터넷을 하고, 게임을 하면서
생각나는 대로 못 참고 하루 1440분을 다 써 버립니다.

<황금성 천국>에 가기를 원하고
<휴거>되기를 바라는 신부들이
하루 1440분의 시간 중에서 ‘1분’도 삼위께 안 주고
단 ‘1분’도 삼위와 대화도 안 합니다.

- ◆ 이런 자들을 보고,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맛있는 소고기 안심 1440점을 구워서 먹고 있기에
‘한 점 주려나?’ 하고 계속 서서 기다렸다.

그러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서
‘1440점 중에서 설마 한 점은 주겠지.’ 하며 계속 기다렸다.

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서 “배가 터지겠네!” 하면서도
나 성령에게 ‘고기 한 점’을 안 주고,
‘마지막 한 점’까지 자기 입에 털어 넣는 격이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<하루 1440분>은 ‘1440점의 고기’와 같습니다.

이 <시간의 고기>를 가지고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‘함께’ 먹으며 잔치해야 됩니다!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
여러분이 월명동에 오면 “뭐라도 해 주자!” 하고,
부침개라도 꼭 부쳐 먹게 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.

선생이 늘 말해도 월명동에서 안 해 줘서 못 먹지,
선생은 이렇게 안 시키는 날이 없습니다.

하나님도 이같이 해 주시는데,
여러분이 ‘하루 1440분’ 을 가지고 살면서,
하나님께 ‘1440분의 1’ 도 안 드리면
<휴거>고 <신부>고 자격이 없습니다.

하루에 ‘1분’ 이라도 삼위와 통하면,
실 한 가닥만큼이라도 삼위와 연결되어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- ◆ 그리고 “하자! 같이 하자!” 하는데도 안 하는 자가 있습니다.

해도 해도 너무 하니 더 이상 ‘그 사람’ 에게 신경 안 쓰고
그 시간을 ‘다른 사람’ 에게 투자하니,
그 사람은 바로 알고 늘 하늘과 교통하며 대화하고,
말씀에 더욱 확실히 서서 외치고,
일도 도와주고, 전도도 하면서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.

어느 면에서 봐도 ‘먼저 온 자’ 보다 낫습니다.

- ◆ <사람을 만드는 일>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
그러나 특히 만들기 너무 힘든 자가 있습니다.
말을 너무 안 듣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.

<세월>은 자꾸 흘러가고 <하나님의 역사>도 계속 흘러가니,
그런 자는 뒤로 제쳐 놓고 ‘다른 사람’ 을 키우고 만들어야
성령님의 심정 타는 마음도 없어지고 속이 시원합니다.

성품이 해 같고, 달 같고, 기치를 벌인 군인 같아야 됩니다.
그래야 ‘하늘의 신부’ 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래야 하늘이 손을 댈 때, 그만큼 변화되고 만들어집니다.

- ◆ <시간>을 잡아서 ‘하늘’ 을 위해 써야
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공합니다.

- ◆ <시간의 십일조, 물질의 십일조>는 기본입니다.

하루는 1440분이니,
10분의 1인 144분, 곧 2시간 24분이
‘하루 시간의 십일조’ 입니다.

<시간의 십일조>를 하늘 앞에 드리면,
하나님께서 ‘시간의 축복’ 과 ‘지혜’ 를 주시어
10시간에 할 것을 7시간, 5시간 만에 하게 해 주십니다.
그리함으로 ‘시간의 창고’ 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십니다.

- ◆ <좋은 아이디어>가 있어도 <시간>이 없으면 실패합니다.

하늘 앞에 <시간의 십일조>를 척척 드림으로
‘시간의 축복’ 을 받아서 일도 빨리하고
‘시간의 창고’ 가 차고 넘치게 되면,
<시간>이 많으니 쫓기지 않고 그만큼 성공하게 됩니다.

- ◆ 쪼들린다고 안 하면, 계속 더 쪼들리게 됩니다.

매일 <시간의 십일조, 물질의 십일조>를 하늘 앞에 드리는 자는
2배, 10배, 100배까지 축복을 받아서 쪼들리지 않습니다.

- ◆ 예수님은 “주(主)도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한다.” 말씀했습니다.
(마 25:26, 눅 19:22)

하나님이 받으시고,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?

<땅에서 육이 하나님께 드린 것>은

<육>은 천국에 못 오니 <육>에게 주어

<육>이 땅에서 먹고 즐기게 해 주십니다!

그러니 절대 믿고 행하기 바랍니다.

- ◆ 하늘 앞에 말로 감사하고, 행실로 감사하는 것도
<십일조 생활>입니다.

<물질의 십일조>는 기본입니다.

- ◆ 특히 <하늘의 신부들>에게는
‘하나님의 것’을 ‘각자 자기 것’ 같이 쓰게 해 주십니다.

선생은 월명동의 30평도 안 되는 작은 청기와집도

개인 것으로 쓰지 않고

월명동 왔다가 잘 곳 없으면 거기서 자고 가라고 해주었습니다.

또, 기도 방이 되기도 하여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만나는 데 쓰이는 방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오늘은 <시간>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.

‘시간을 어떻게 쓰느냐’에 따라서
<황금 시간>이 되기도 하고,
<철 같은 시간>이 되기도 하고,
<오물 같은 시간>이 되기도 합니다.

삼위일체와 함께 써야 그때마다 <황금 시간>으로 씁니다.

- ◆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10대, 20대, 30대, 40대에
인생을 ‘씩는 데’ 쓰고 있습니다.

혼계에서만 봐도 다 보입니다.

- ◆ 선생은 <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>을 가지고도
지금 10대들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.

왜요? 선생은 ‘쓸데없는 일, 필요 없는 일’을 안 하고,
매일 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며
삼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하기 때문입니다.

- ◆ 10대들은 시간도 많은데
그 시간을 미디어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 데 쓰니까
그 많은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냅니다.

하루를 계산해 봐요.

자기가 얼마나 ‘필요 없는 것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,
자기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계산해 보면 압니다.

- ◆ 그러나 어려도 ‘말씀’을 실천하면서

‘하나님의 생각’으로 사는 자들은
아직 어리니 시간도 많고, 그만큼 행하니까 엄청나게 됩니다.
그런 자가 <시대>를 잡고 <시대>를 앞질러 가면서 살게 됩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어 주고,
아주 짧은 시 한 편 전해 주고, 말씀 마치겠습니다.

- ◆ 기도도, 할 일도, 하늘과의 약속도
제때 제맛이 날 때 하기입니다.

제시간이 지나서 맛이 변했다면
마음과 생각을 다시 뜨겁게 해서 맛을 찾고 하기입니다.

- ◆ <시간>은 지구 세상 73억 명이 잡아도 못 잡습니다.

<시간을 잡는 방법>은 ‘빨리하는 것’이며,
<빨리하는 방법>은 ‘영적·신적으로 하는 것’입니다.

<육>으로 뛰어서는
아무리 뛰어도 남보다 **조금 더, 한 뼘 더, 한 발자국 더** 앞서갈 뿐입
니다.

<영적>으로 해야 됩니다. <신적>으로 해야 됩니다.
그래야 ‘10~20배의 시간’을 잡고서 쓰게 됩니다.

- ◆ <신적으로 하는 것>이란, 신의 머리를 사용하기입니다.
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대로 행하기입니다.

그리고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

‘돌아갈 길’ 을 질러가고

‘하지 말아야 할 일’ 을 안 하기입니다.

◆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

시키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행할 때,

그것이 ‘신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’ 이 되고

자기 생각이 ‘하늘같이 높은 생각’ 이 되어

10배, 100배 시간을 잡고 쓰는 자가 되어 행하게 됩니다.

<시 - 제때>

때 지나면

음식같이

만사가

제맛이 간다

제때

제시간에

생각하고

행하기다

◎ 말씀 마쳤습니다.